

東北아시아 신 文化에 關한 研究

—靴, 鞋, 覆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조 선 희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이 순 홍

目 次

I. 序 論

II. 신의 發生 및 祖型

III. 신의 類型變遷 및 變化決定要因

IV. 신의 類型과 特徵

V. 結 論

參考文獻

ABSTRACT

I. 序 論

服飾形成에 있어서 자연환경은 가장 原初의 면에서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여기에 그 社會固有의 生活樣式, 民族特性 또한 강하게 반영된다. 服飾은 他文化와의 交流, 傳播 등을 통하여 새로운 요소들이 더해지면서 변화와 발전을 꾸준히 가져왔다. 따라서 신도 國家 및 地域特徵에 따른 獨自的 發生과 함께 여러요인을 통하여 交流發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의 발생 배경과 조형을 밝히고 동·서양의 복식의 일부분인 신의 始原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고대문명발상지의 신에 대하여 고찰하고, 한국, 중국, 일본 三國의 신을 유형별로 알아봄으로써 동북아시아 신의 조형과 유형분류, 유형변화의 요인과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地域의 範圍는 韓國과 中國, 日本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와 함께 동·서양 복식의 始發에 공통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人類文化發祥

地인 4大 古代文明地域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時代의 範圍는 4大 고대문명 발상지역의 문명발상 초기에서 기원 전·후까지를 중심으로 하였고 한국, 중국, 일본의 동북아세아는 고대부터 근세까지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자료에 의존하면서 벽화 및 그림자료, 사진 등의 자료와 실물자료를 위주로 고찰하였다.

II. 신의 發生 및 祖型

1. 신의 發生

약 5만년 전 무렵 現生人類(現生人類)는 가죽을 이용하여 의복을 지어 입고, 채집을 위해 산야를 달리며 동시에 밭 보호의 필요도 느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바늘과 송곳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원시적인 초기 신을 제작하였으리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으며 원시적 신의 시작이 빙하기의 말에 시작되어 착용되었다.¹⁾

1) François, Boucher, 20,000 Years of Fashion, N.Y : Abrams, 1965, p.28.

1) 氣候·風土的 背景

두터운 체모를 입어버린 초기 인간은 거주 한계 지역 안에서 즉, 기후의 허용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체력의 한계를 느꼈을 것이며, 이 경계선 안에서의 기후에 적응하기 위하여 신 착용이 비롯되었을 것이다. 구석기시대 인류는 대자연과 투쟁하던 중 獸皮를 걸치면서 추위를 피할 줄 알았으며 따라서 이미 수피로 발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건조하고 매서운 추위를 견디기 위하여 동굴생활과 동물의 가죽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신 또한 예외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生態學的 背景

고대신석기문화의 지역적 차이는 그 당시의 기후 및 생활양식과 밀착되었으며, 지리, 생태학적인 측면과 그 생업에 맞도록 얻어지는 재료를 가지고 고안된 신의 형태를 갖추게 하였을 것이다. 구석기시대의 인류와 같은 생활습관을 오랜기간 유지하고 있는 알래스카의 남서쪽의 알류트族(Aleutian Islands)은 鳥獸 특히 새의 가죽을 이용하는데 海獸의 내장으로 바느질 하면 바람, 寒氣, 습기 등에 강하기 때문에 여인들이 주로 이 鳥皮와 腸을 이용하여 衣服과 신의 봉제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있다.²⁾ 카마차 달(Kamchadal)族도 獸皮를 이용하여 衣服과 履物을 만드는데 骨製의 针으로 봉재하고 있으며 실은 힘줄을 이용하였다. 특히 그 신의 모습은 靴의 형태를 하고 있다.³⁾ 수렵 및 채집, 어로 등의 생산수단을 통하여 얻어지는 다양한 차이가 皮, 毛, 魚皮, 草, 헬트 등 재료와 형태로 나타난다.

2. 신의 祖型

유럽의 수만년전 동굴 벽화에서는 짐승의 가죽으로 발을 감고 텔이 달린 가죽 그대로인 한 갈래의 가죽끈으로 돌려 묶어 싸맨 신의 형태가 발견된다.⁴⁾ 이것은 신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인 가죽으로 반돈 오늘날 행전과 비슷한 모습으로 가죽피 양말 형태를 하고 있다. B.C 3000년경의 페르시아 祭壇(제사용 주전자)에서는 기초적인 고대신의 기본 유형을 보여주는 신으로서, 즉 가죽으로 감싸거나 원시적인 샌달의 모습을 보여준다.⁵⁾ 청동기시대인 B.C 1500~1100년의 유물에서 약 20×8인치 크기의 두개의 천이 발견되었는데 양발을 돌려 감싸기 위한 천으로 양쪽의 한끝은 식서(sel-vage)로 다른 한끝은 그저 풀어지게 놔둔 것⁶⁾이어서 상당기간 동안 이처럼 양말과 신의 조합된 형태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가죽 혹은 그 지역의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발과 다리를 함께 감싸는 신에서 신의 출발을 상상할 수 있겠다. (圖 1)

또다른 형태로서 장방형의 가죽으로 발을 싸매묶는 형식이 있다. 北아메리카 인디안의 모카신과 같은 1장의 가죽으로 발바닥 부분에서부터 발등을 싸고 그 둘레에 구멍을 뚫고, 끈을 끼어 묶어 발에 고정시키는 것이었다. (圖 2)

III. 신의 類型 變遷 및 變化決定要因

1. 시대적 변천에 따른 신의 유형

1) 古代文明 發祥地의 신

(1)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신

2) 加藤九祚, 「北東アジア民族學史の研究」, 東京 : 恒文社, 1986, pp.34~46.

3) 위의 책, pp.86~93.

4) 駱崇驥, 「中國鞋文化史」,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1.

5) Colin McDowell, 앞의 책, p.97.

6)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N.Y : Harper, 1965, pp.57~58.

티그리스·우프라테스 강의 비옥한 땅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기원전 4000년 후반에는 수메르의 국가건설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 기원전 3000년에는 그 문명이 서남아시아 전체를 포함하였다.⁷⁾ 일반적으로 수메르인들은 이집트인들처럼 맨발이었으나 스텔라(Stela)승리의 조각에서 보이는 나람신(Naram-sin)王(B.C 2500)은 가죽끈으로 된 샌들을 신고 있다. B.C 3000년경 종교적 행사때 사용됐던 점토像에는 앞부리가 약간 위로 쳐들려진 형태의 신을 신은 모습이 보인다. 앞이 들려진 형태는 악카드시대에도 나타나는데 왕 전용의 디자인으로 의식적인 행사때 착용되었으며 산악지대인들에 의해 메소포타미아에 소개된 듯 하며 후에 중앙아시아, 동지중해 멀리는 西方의 에투루리아에 까지 퍼지게 된다.⁸⁾

「山의 民族」인 헷타이트人们的 신에서 보이는 신의 발부리가 올라간 각종 신(圖 3)과 鞠일색은 산악민족에 의한 전파라고 이미 언급을 하였는데 이것이 주변민족 특히 중앙아시아의 기마유목민과의 교류 또는 전파에 의한 것이라면 뒤이어 나타나는 앗시리아 왕조에서 그동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바지와 鞠의 출현은 어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2) 이집트문명과 신

기원전 3200년경의 이집트의 문명은 비교적 고립된 문명이다. 가죽을 꼬아만든 샌들은 초창기부터 착용되었고 성직자들은 파피루스로 만든 것이었다. 그 형태는 두번째 발가락 사이를 지나는 가죽끈으로 코끌이 올라간 모양을 만들기 위해 신의 다른 끈과 연결시켜 뒷꿈치에서 묶는 형태였으며 대부분 손으로 들고 다니다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신는 등 조심스럽게 다루었다.⁹⁾ 이집트에서 신발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던 모양으로, 서민은 맨발로 걷고 상류계급은 종려나무로 만든 샌들을 신으며 그 샌들은 앞부리를 들어올려 발가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¹⁰⁾

(3) 인도문명과 신

인더스 文明의 개시는 黃河문명보다 1,50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며 그 범위는 나일강의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합한 것보다 더 넓은 지역이었다고 추측된다.¹¹⁾ 신에 대한 기록은 적지만, 바투리나파다(Vaturinapada)와 팟상기니(Patsangini)가 있다. 이것은 전장에서의 발보호대와 병사들이 착용했던 투박한 발 매는 형식으로 추정된다. 또 우파나(Upanah)는 儀式用 샌들로 영양이나 옛돼지 가죽으로 제작되었다¹²⁾는 기록이 있다. 이후 인도의 역사시대(B.C 642~B.C 320)의 신은 형태, 색상, 재료가 차이를 보이며 의복에서 중요한 품목이었다. 신의 형태는 폐쇄형의 모카신 종류와 鞠, 흡과 모직물과 누빈 것, 양의 뿔로 장식된 것, 신의 앞부리가 전갈의 꼬리처럼 젖혀 올라간 것, 공작의 깃털로 장식된 것 등이 있었으며 그 재료는 호랑이, 사자, 표범, 사슴, 수달, 고양이, 다람쥐, 부엉이의 가죽으로 화려하게 제작되었다.

고대 인도의 服장은 亞熱帶的인 기후조건으로 말미암아 卷衣와 腰布 등과 신을 신지 않는 맨발차림이다. 그후 군사복식으로 출발한 신과 의식용, 특권층을 위한 신의 착용, 일반인의 간단한 신과 맨발이 보편화 되는데, 그 한편으로는 裸身을 장식하려는 장신구가 발달하고 있다.

(4) 중국문명과 신

18,000년 전의 山頂洞人은 중국의 現생인류로

7) 田村實造, 「アジア史を考之る」, 東京: 中央公論社, 1990, p.367.

8) François Boucher, 앞의 책, p.41.

9) 위의 책, p.97.

10) ミシェル・ボーリエ, 앞의 책, p.30.

11) 酒井憲一, 都市と間名と環境, 「衣生活」, Vol. 38(NO. 4), 東京: 衣生活研究會, 1995, p.28.

12) Moti Chandra, Costumes Textiles Cosmetics & Coiffure in Ancient and Mediaeval India, Delhi : Oriental Publishers, 1973, p.10

정교한 골침을 제조하여 獸皮衣服을 봉제하였다. 原始 “鞋”的 일종인 裳脚皮, 또는 獸皮袜이 존재하였다는 것이 보고 되었다. 이 신은 정교하게 베어낸 짐승가죽을 발에 싸고 텔이 있는 한 개의 가죽끈으로 돌아 싸맨 것으로, 추측하건데 이미 수만년 이상의 역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있다.¹³⁾ 황하의 지리적 혜택과 선진된 농경기술로 보다 진보된 생활로 농경이 허락된 시기의 신은 그동안 獸皮에서 草나 麻, 葛과 같은 식물성 재료로도 제작하였다 것이다.

2) 中國의 신

중국신 裳脚皮는 발을 가죽으로 둘려 감는다는 의미를 가진 原始鞋의 일종이다. 짐승의 가죽을 예리한 도구로 벗겨낸 후 발에 싸고 텔이 있는 한갈래 가죽 끈으로 둘려싸맨 신이다. 중국의 서쪽 끝 신강지구의 토로번에서 출토된 3200년전의 皮鞋는 높은 신목의 신으로서 위의 裳脚皮의 구성에 의거하여 생산된 것이어서 중국의 최초 신의 형태는 아마도 獸皮製였던 것 같다. 황하유역에서의 殷代 유적발굴에서 보면 안양현출토 대리석 人像에서 보이는 신은 履¹⁴⁾의 형태이고, 또한 王后의 立像에서도 履의 형태이며, 또 다른 像에서도 履가 보이는 것처럼 이 시기의 중국은 鞏에 이어서 履의 형태가 착용되어 공존되었던 것 같다.

春秋戰國시기는 短衣, 長褲, 革靴, 또는 術腿(정쟁이를 싸매 올라가는 형식)로 소매는 좁아 활동하기 편리하였는데¹⁵⁾ 북방유목민의 특징이다. 당시의 履物의 종류로 상류사회에서는 鳥, 履(木台를 블인 履), 絲履(비단으로 만든 얇은 鞋), 韃(皮

革製의 靴)등이 착용되었는데, 일반서민은 麻履, 草履, 木履등을 착용하였다.

기원전 221년 중국은 秦漢시대에 이르면 絲綢之路로 명명되는 실크로드를 따라 중앙아시아와 문화교역등이 활발해진다. 이 시기의 신에서 중요한 것은 高頭, 또는 歧頭의 비단신(絲履)으로 위에는 여러가지 꽂무늬를 수 놓았고 혹은 葛麻로 만든 것은 方口方頭의 낮은 布履였다.¹⁶⁾ 漢代 이후 鞋는 ‘履’로 명칭되고 그 재료의 원료로서 명칭을 붙였다. 皮履, 絲履, 麻履, 草履 등의 여러 종류가 바로 그것이며, 이외에도 鳥, 履, 皮靴(高筒靴)등의形式도 착용되고 있다.¹⁷⁾

A.D. 220년 漢(漢)의 멸망후 南北朝 시기에는 絲履의 木履이 크게 유행하여 「宋書, 武帝記」에 “그 성질이 간편 용이하며 항상 연치목국을 착용하고 신무문(神武門)을 나섰다.”¹⁸⁾라고 기록하고 있다. 木履은 대부분이 南朝의 사람들이 착용하였으며 草鞋도 당시 일반 士人이나 貧者들이 착용하였으며 靴도 南朝에서 착용되었다.¹⁹⁾

581년 隋의 文帝에 이어 618년에는 300년에 걸친 唐의 시대는 皮靴가 囉領과 함께 보편적으로 유행하였던 신의 양식이었고 집에 있을 때는 絲履 등을 신었고 특히 幡頭, 囉領衫袍 착용시에는 鳥皮六合靴를 배합하여 신었는데 시원스럽고 풍채가 뛰어났고 또 용맹스러운 기풍을 잊지 않았으며 漢族과 북방민족이 융합하여 창조해낸 한별의 복식이었다.²⁰⁾ 唐代婦人の 신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靴, 履, 鞋 등이며 鞋는 재료에 따라 皮, 麻, 線, 錦鞋등의 4종류로 나뉘었다. 반면 北朝의 胡俗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隋代人들은 靴의 착용이 많았

13) 駱宗騏, 앞의 책, p.1.

14) 杉本正年, 井上泰男, 松本敏子, 「東西の服裝史」, 東京 : 衣生活研究會, 1985, pp.101~103.

15) 華梅, 「中國服裝史」, 天津 : 天津人民美術出版社, 1989, p.10.

16) 華梅, 앞의 책, p.17.

17) 袁杰英, 「中國歷代服飾史」, 高等教育出版社, 1994, p.302.

18) 「宋書, 武帝記」, “其性尤簡易, 常者連齒木履, 好出神武門”, 周錫保, 앞의 책, 1984, p.135.

19) 周錫保, 「中國古代復飾史」, 北京 : 中國印刷出版社, 1984, p.135.

20) 華梅, 앞의 책, p.36.

으며²¹⁾ 履는 그 신부리가 高頭, 平頭, 小頭, 云形, 花形, 重台, 如意 등의 여러 양식으로 나뉘었다.²²⁾ 唐이후 부녀의 전족습속은 1000여년 동안 신발양식에 영향을 주었다. 960년 宋이 건국되고 宋代初期 冠服으로 朝會때는 靴를 착용하고 후에 履로改用하였으나 乾道7년 다시 靴로 바뀐다. 但 靴制에 履制를 참고하여 신목에 黑革을 가하고, 걸은 麪을 보강하여 文武官이 모두 착용하였다. 일반남자들은 皮靴와 布鞋를 이용하여 여름철에는 청량감을 주고 방서효과가 있는 草編의 鞋와 겨울철의 따뜻함을 위한 皮鞋등이 착용되었다.²³⁾

이후 元代 벽화 및 墓 출토품을 통해서 본 신은 長靴, 尖頭鞋, 紅鞋, 麻鞋, 尖頭靴와 履 착용의 예가 보인다. 元末에 이르면 부녀들의 衣服 및 靴, 帽 등은 高麗양식으로 유행하였다.²⁴⁾

1368년에는 明이 건립되어 漢族의 禮義회복을 포괄한 관복제도의 조정과 胡服, 胡性, 胡語등의 금지조치를 하였다.²⁵⁾ 그러나 明代에는 그동안의 여러 민족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이미 이들의 漢族으로 유입이 되어 있음을 뜻한다.²⁶⁾ 일반백성의 履는 여러 종류의 재료와 양식이 있는데 革靴, 布低綾面便靴 등이 있다. 강남인(남방)은 대부분 蒲草鞋를 신었고, 木履도 널리 착용되었다. 북방인은 牛皮直筒靴를 신었다.²⁷⁾

21) 痞甲, 唐代婦女的服飾, 「明報」月刊, 1994, pp.7~8.

22) 楊志謙外 3人, 「唐代服飾資料選」, 北京: 北京市工藝美術研究所, p.5.

23) 袁杰英, 앞의 책, p.303.

24) 위의 책, p.357.

25) 華梅, 앞의 책, p.66.

26) 孫進己, 林東錫 옹길, 「東北民族源流」, 서울: 東文選, 1992, p.452.

27) 華梅, 앞의 책, p.69.

28) 李如星, 「朝鮮服飾考」, 서울: 白楊堂, 1947, p.147.

29) 「高麗史」, 앞의 책,

「高麗史」志 卷三十九, 刑法二,

「高麗史節要」卷二 成宗文懿大王 元年 壬午,

「東國通鑑」, 高麗紀, 成宗文懿大王 元年 六月,

「增補文獻備考」, 卷79 예고 26 장복 1.

30) 「高麗史」, 앞의 책.

31) 「高麗史」, 志 卷三十九 刑法二,

「高麗史節要」, 卷三 顯宗元文大王 十八年, 丁卯.

3) 韓國의 신

우리나라의 가장 오랜 전통과 보편성을 지닌 신은 형태상에 있어서 草履의 履와 皮靴인 靴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靴는 防浸, 防寒에 적당하여 武風의 北方族이 많이 신었고, 履는 文秩의 南方族이 흔히 신었다고 이여성은 「조선복식고」에서 밝히고 있다.²⁸⁾ 고구려는 黃草履의 기록 이외에도 烏皮靴, 赤皮靴의 기록이 있으므로革으로 만든 履 또는 靴가 착용된 것으로 보인다. 백제는 고구려와 비슷한 草履 또는 革靴, 草履의 형태 착용이 추정된다. 통일신라의 靴는 흥덕왕복식규제를 보면 靴帶가 붙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려시대 기록으로 “신라제도에 의하여 정사를 보고할 때에는 袜靴, 絲鞋, 草履를 신게 할 것이며 ……”²⁹⁾라고 있고 백관의 관복에는 맷발에 黑履를 신고 있다.³⁰⁾

庶民과 僧에게는 皮鞋의 착용을 금하였다.³¹⁾ 이처럼 서민은 주로 皮製보다는 麻 또는 絲, 草 등으로 신을 만들어 착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시대에도 靴와 履의 착용이 흔용되면서庶人們은 草履, 旬履를 신었음을 알 수 있다.

朝鮮朝에 들어서면서 經國大典에 의거하여 百官의 祭服과 公服에는 一品에서 九品까지 黑皮靴를 신고 常服에는 1품~3품 堂上官만 협금화(挾金

靴)를 신었다. 鄉吏는 公服에 黑皮鞋를 신고 常服에 皮鞋를 신었다.³²⁾ 黑色은 公用의 색깔로 가죽으로 된 靴는 公用으로 사용되었고 鞋는 公·常時 신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³³⁾ 서민복에는 草履와 麻鞋, 紙鞋를 착용하였고 朝鮮中期에는 나막신도 사용되었다. 또 일반 부녀자는 가죽으로 만든 雪鞋나 草鞋, 나막신, 油鞋(정신) 등을 신었다.³⁴⁾

4) 日本의 신

일본에서 신의 출현은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다. 「魏志倭人傳」에도 橫幅衣 착용과 양잠의 기술이 있지만 모두 맨발이라 있어 3세기 말 일본 의복은 있지만 맨발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明治 34년에 「裸足禁止令」이 나와 있어 이때까지도 맨발의 경우가 꽤 있었음이 관찰된다.³⁵⁾

일본의 겨울기온을 생각한다면 횡폭, 관두의 만이 의생활의 전부였다고 생각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에 따라 신의 착용 또한 二部樣式 의복의 흐름을 받는 中部以東의 일본인의 신과 西일본의 신은 차이가 있다고 본다.

土偶의 像에서 보이는 신의 모습 이외에 일본에서 최초로 나타난 신으로는 다게다(田下駄)가 있다. 이것은 논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경작용구라 할 수 있다. 弥生式文化後期의 靜岡縣 登呂遺跡에서 다수 발견된 杉材의 田下駄이 발견되었고 山木에서는 大足이라 부르는 代踏下駄가 발견되었다. 이것이 일본에서의 신의 유물출현 시작으로 볼 수 있다. 4세기에 시작되어 7세기 전반에 걸쳐

있는 고분시대의 인물하니와의 복장은 胡服 樣式으로 北方系 의복이 착용되며, 고분시대 후에는 북방계의 요소가 강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고분시대의 하니와에도 靴의 착용이 있음이 당연하다. 奈良縣生駒郡 鳩町의 藤ノ木(후지노끼)古墳(6세기)에서 출토되는 남자하니와에서는 山高帽과 같은 모자를 쓰고 靴를 신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일본의 경우는 웨트와 같은 부직포가 없었기 때문에, 일부인을 제외하고, 모자와 신은 주변에서 가까운 재료인 薦나 麻로 짠것을 사용하였을 것이다.³⁶⁾

飛鳥시대의 복식에 대하여 「隋書」에 「男子의 신은 形의 칠을 한 木履³⁷⁾로 발에 맨다. 서민 대부분은 맨발이며, 金銀을 사용해서 장식하지 못함」³⁸⁾이라 되어 있다. 推古天皇 11년(603)에 聖德太子에 의해 冠位 12階가 제정되고 大寶元年(701)에 天武 天皇의 大寶令이 發布되고 718년에는 養老令이 포고된다. 이 衣服令은 이후의 朝廷, 公家階級의 服裝에 기준이 되고 있다. 文官의 禮服으로 駄을 착용하고 朝服에서는 緞, 武官의 禮服用으로 靴 그외 직급이 낮은 武官은 履를 착용함으로써 文官과 武官의 구별과 아울러 上下를 구별짓고 있다. 그러나 日常에서는 모두 草鞋를 착용한다. 전국적으로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맨발이거나, 게다(下駄), 草履, 草鞋類, 木屐 등이 착용되었다.

이후 平安시대는 차츰 日本風의 색채가 시작되는 시기이다.³⁹⁾ 平安前期의 「廷喜式」의 기록에 보면 公事公會에 文官과 五位以上의 武官은 靴를 신

32) 石笛善, 「續, 韓國복식사」, 서울 : 고려서적, 1982, p.457.

33) 위의 책, p.457.

34) 「韓國의 服飾」, 韓國文化財 保護協會, 1982, p.320

35) 「世界の衣裳」, 朝日新聞社編, 研究社, p.132.

36) 위의 책, p.34.

37) 井筒雅風, 「日本女性 服飾史」, 光林社, 昭和61, p.24.

38) 「隋書」, 卷八十一 列傳.

“其服飾 男子衣常襦 其袖微小 履如綾形 漆其上繫之於脚 人庶多跣足不得用金銀爲飾 故時衣 橫幅結束 相連而無縫

39) 太田臨一郎, 「日本服制史 -上-」, 東京 : 文化出版局, 平成元年, p.107.

도록 정하고 있다. 庶民의 신은 슈즈(shoes)의 형식이나 뒷축이 없는 신이다. 이 靴는 革製로서 위에는 薔薇錦이라는 花文으로 짜서 나타낸 錦을 붙이고 있다. 이것은 奈良시대의 武官이 사용한 錦의 행전이 형식화하여 남아있는 것을 말한다.⁴⁰⁾

鎌倉時代는 武家가 사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는데 신에 대한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다만 이 당시의 풍속화에서 보면 맨발 혹은 鞋 또는 계다(下駄)의 모습이 간혹 보이고 있다. 「大東野乘」에 보면 1242년 제주사람 박손(朴孫)의 무리가 표류하여 일본의 琉球國에 도착하여 4년을 머무른 기록에서 “오직 귀한자만 趺신을 신고 나머지는 맨발이다⁴¹⁾”라고 있는 바와 같이 아직 당시의 일본대륙은 맨발이 보통차림으로 남아있던 것이다. 무로마치(室町)時代의 禮服으로 烏皮의 袷이 있다. 束帶 차림의 履는 신의 앞코 부분이 없는 袷을 말하며 袷의 안창은 裳의 걸감의 천을 사용한다. 靴는 靴底으로 赤色 錦이 있는 靴를 착용하며 深沓이라고 부른다.⁴²⁾ 1603년 江戸의 幕府시대는 일본풍의 신이 확립되어 武家の 신으로 왕골로 짠 蘭草履나 袷을 신거나 緒太를 신었으며, 이밖에도 趺으로 신지를 만들고 趺을 白紙로 말아 꼬아서 고리를 만든 中拔草履를 신기도 했는데 이것은 蘭草履와 같은 것이었다.⁴³⁾ 公家와 武士 다음으로 농민들은 草履, 足半, 藤沓에 발뒤꿈치 또는 벌가락을 덮는 형태의 여러 가지 신이 있었으며 버선은 금지되었다. 이것은 남녀 공용으로 착용하였다.⁴⁴⁾

2. 신의 類型變化 決定要因

1) 氣候變化的 要因

風土의 문제와 함께 인류의 생활 자체가 기후와

40) 山辺知行, 앞의 책, p.30.

41) 「大東野乘」, 卷四

“…… 唯貴者着草履 餘階跣足 ……”.

42) 太田臨一郎, 앞의 책, p.254.

43) 위의 책, p.332.

44) 鷹司繪子, 「服裝文化史」, 東京 : 朝倉書店, 1991, p.68.

밀접한 관계를 갖는 만큼 기후의 요소로서 기온, 습도, 풍속, 热線, 雨等 등에서 가장 직접적인 온도와 습도의 기후환경조건을 동북아시아로 국한 시켜 신의 유형을 결정짓는 요인과 관계를 살펴보았다. 즉 벌의 노출여부, 형태, 재료, 특징 등과 연관시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1).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차이에 따르는 기후의 변화는 벌의 노출여부에 따른 신의 형태뿐만 아니라 재료 및 구성에 따르는 보온의 유무 등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따라서 기후 풍토에 의하여 형태와 재료의 특징이 달리 나타나게 되어, 냉대 지역은 모피를 이용하였고 특히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魚皮를 사용하기도 한다. 온대지역은 皮革, 布帛, 草, 木 등의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였다. 온난한 지방에는 개방적인 신 종류가 많고, 그 재료도 草, 木類로 재작한 것이었다. 끈이나 벨트로 신바닥에 벌을 고정시키는 형식의 각종 샌들이 착용되어 왔다.

2) 機能的 要因

기능적 요인을 신체적인 보호측면을 중시하는 外的 機能要因과 도덕 의례상의 목적 및 상징적인 표현을 위한 도구로서의 기능 등의 内的 機能要因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신의 유형을 결정짓는 요인과 연관시켜 분류하였다(표 2).

동북아시아 지역의 신은 外的 기능요인에 합당하도록 신의 형태 및 특징, 착장방법이 결정되어 제작 착용되었다. 高筒靴, 蕤靴, 毛皮나 felt를 이용한 靴는 外傷뿐 아니라 추위에 적합하였고 올라초와 같은 마른풀을 신안에 넣어 벌이 젓지 않도록 하였다. 반면 뜨거운 사막지역과 더운지역에서는 靴뿐 아니라 시원한 草로 엮은 신을 착용하였

<표 1> 동북아시아 기후적 요인에 따른 신의 유형 결정요인

유형결정요인 자연환경적요인	노출여부	형태	재료	특징	지역
냉대	폐쇄형	靴, 履	毛皮, 魚皮 가죽 Fel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온유지 발이 습기에 젖지 않도록 유지 얼음과 눈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유지 	강설지역 침엽수림지역
사막, 스텝	혼합형 (폐쇄형, 개방형)	靴, 履, 샌들류	皮革類 木 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래가 신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유지 뜨거운 지면의 열기 차단 말 탈 때 착장유지 	초원건조지역
온대	혼합형 (폐쇄형, 개방형)	靴, 履, 屎	皮革類 布帛類 草, 木類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온유지 의복과 조화 및 창작보완 유지 발의 보호 	도착지역 활엽수림지역
아열대	개방형	履 屐(제다류) 밴발	草, 木類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면의 습기로부터 보호 경작용구로 사용할 때 신체 유지 발바닥, 발가락 보호 	도착지역 우림지역

고 신부리가 올라가 열기를 차단시키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신의 앞부리가 뾰족하게 솟게한 신은 기마時 馬具의 밀착되도록 하여 기능적으로 신의 유형결정에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발의 이동동작에 따라 중심이 이동되기 때문에 신이 의복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밀착성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에서의 게다(下駄)가 도착농경의 도래에 따라 논 경작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설도 신이 도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진흙과 비가 많은 곳에서 신기 적당한 오늘날의 게다의 모습을 다듬어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신의 內的 기능요인으로 의해 및 상징적의 미의 표현이 나타나 신의 유형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전족풍습은 노동을 하지 않는 특권계층임을 알리는 상징으로 시대에 걸쳐 중국 신의 유형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3) 社會經濟的 要因

신을 포함하는 복장은 어떤 사회, 어떤 시대의 풍속현상으로도 존재한다. 따라서 복장은 계급이나 신분 혹은 성별 그리고 시대정신이라는 역사적, 사회적 조건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는다.¹⁵⁾

동북아시아지역의 신 또한 歷史를 통하여 나타나는 禁令 및 服飾禁制를 통하여 신 또한 각 品階에 맞도록 차등을 두어 그 재료 및 색상 신의 종류 등을 제한하였다. <표 3>

신분에 따라 皮, 布, 草, 木 등 재료의 차이 및 그 색상, 문양, 장식이 결정되며 또 경제적 요인에 따라 고급직물, 장식 등이 신의 유형에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다.

4) 異美的 要因

동북아시아 지역 또한 신의 심미적요인이 다양하고 섬세한 장식 및 부속품, 형태 및 디자인, 재

45) 井上泰男, 匠秀夫, 앞의 책, p.5.

〈표 2〉 동북아시아 신의 기능적 요인에 따른 신의 유형 결정요인

유형결정요인 기능적 요인		재료	형태	착장 및 특징	용도 및 효과
外 的 機 能 要 因	外傷으로부터 보호	가죽 나무	靴(釘靴) 履 屐(게다)	· 바닥이 두껍게 하여 산길, 물길에 편리	· 다리상처 보호 · 발바닥 상처보호 · 雨天時 방수효과
	寒, 热로부터 보호	모피 가죽 나무 풀	靴(皮靴), 高筒靴, 鹿靴) 履 藁鞋	· 신안에 마른풀을 넣어 방습 및 보온 유 지 · 신바닥을 높게 하여 한기로부터 보호 · 草編으로 청량감 유지 · 靴안으로 바지를 넣어 착장 함	· 보온효과 · 햇빛차단 효과 · 방서효과
	충격완화(미 끄럼방지, 특 수효과)	연어피 (魚皮) 나무 천, 가죽	靴 (魚皮靴) 履	· 밀창바닥에 끗(정)이 박힘 · 밀창바닥을 누빔 · 신의 발가락 부분을 나누어 민첩함 보 완	· 軍靴효과 · 일본 武士의 방음, 착 지 효과
	기마用	가죽	靴 (尖頭靴)	· 신의 앞부리를 뾰족하게 솟게 하여 말 달 때 신이 벗겨지지 안도록 함	· 다리의 상처보호 · 밀착착장의 효과
	작업用	나무 (+끈)	다게다 (田下駄)	· 말이 빠지지 않도록 함 · 反方形의 나무판에 고리를 불여 착용	· 진흙논에서 넘어지지 않고 안정된 자세확립 효과
	보행用	천	履 舄	· 신부리를 높게 하여 옷자락이 밟히지 않도록 함	· 넘어지지 않도록 유지 효과
內 的 機 能 要 因	도덕 · 의례의 표현	천 가죽	靴 舄 履	· 품제에 맞는 색상과 재료 선택 착용 · 특정한 의식에 착용(先靈의식) · 冕服에 舄 착용 · 公 · 常時 착용	· 의례에 맞도록 착용(身 分役職표현의 효과)
	상징적 의미 표현	천 가죽	靴 履	· 신에 글귀를 짜넣거나 문양을 그려 표 현 · 수 또는 형태를 만들어 붙여 제작 · 전족의 형태 유지	· 장수기원 · 무병치료 효과 · 부귀의 표현 · 특권계층 표현

〈표 3〉 동북아시아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신의 유형 결정요인

유형결정요인 사회경제적요인	재료 및 색상	형태	특 징	문양 및 장식
신분 표시 (신분질서유지)	皮(鳥, 綠, 白, 青, 赤 등) 布(絲, 錦) 草, 木	舄, 履 靴(狹金靴) 屐(高根齒屐)	· 색상에 따른 품계차등 · 文 · 武官 上 · 下에 따른 靴, 履 차별 · 재료(絲, 麻, 草)에 따른 신 분구별 · 직업에 따른 靴, 履 구별	· 문양의 제한 · 신의 부분장식, 색상제한 · 구슬, 보석장식 제한 · 姮娥 등은 방울 등으로 장식
사치 금지	錦 등 고급직물 皮(紫皮) 布(絲, 麻)	靴(靴帶) 履 白靴, 덧신	· 특수직물(樹, 織, 錦, 繪) 의 제한 · 가죽신의 제한	· 繪紋의 제한 · 靴帶의 재료 차등 (金, 銀, 麟, 鐵, 銅) · 內拱(안감)직물의 제한

〈표 4〉 동북아시아 신의 심미적 요인에 따른 신의 유형 결정요인

유형결정요인 심미적요인	장식 및 부속품	형태 및 디자인	재료	특징
키 커보이는 효과	신의 부분장식 게다끈의 장식 게다굽의 장식 수장식	굽높은 靴(高根鞋, 馬蹄底, 花盆鞋, 高底鞋) 밀창두터운 靴 鳥 履, 高け다	가죽 木 布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꺼운 바닥은 키작은 부인을 위한 용으로 아랫굽이 위태롭게 되어있음 여러 형태의 굽
에로티시즘 표현	다양한 색상 및 쥐를 수장식	전족형태의 靴, 履 木底弓鞋	布 皮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절에 따라 장식차이 굽높이 재료에 따라 다양한 종류
아름다움의 표현 및 유행	다양한 신코장식 방울장식 굽, 은, 구슬 장식 신바닥의 수장식 수, 문양 장식	靴, 白靴 덧신(套鞋) 履(鳳頭高翹) 屐	木, 금속 布 皮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색 그림장식 채색 漆장식 靴입구에 바지와 같은 錦장식

료 등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심미적 요인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신에서 키 커보이는 효과, 에로티시즘 표현, 아름다움의 표현 및 유행 등으로 표현되어 나타났다(표 4).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신을 장식하며 키가 커보이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굽을 높게 하거나 밀창을 두껍게 하는 신의 디자인에 영향을 미쳤다. 에로티시즘 표현을 위하여 발을 전족 형태로 변형시켜 여러 형태의 전족 신 디자인을 만들어 냈다.

IV. 신의 類型과 特徵

1. 노출 여부에 따른 유형

개방형 신은 발을 地面이나 위험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발바닥에一枚의 板狀의 솜을 대고 그 위는 윗부분은 벨트 등으로 結付시키는 형태를 뜻하며 폐쇄형 신은 발 전체를 감싸며 추위나 물로부터 발을 보호하는 신발의 유형을 말한다. 다음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폐쇄형, 개방형 신의 유형에 따라 분포와 특징을 살펴보았다(표 5)〈표 6〉.

2. 형태 및 디자인에 따른 유형과 특징

중국의 靴는 신부리가 뾰족한 尖頭形과 신바닥이 높은 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鞋와 履는 발등 부분을 조이고 풀어서 신을 수 있는 형태와 전족의 발모양에 따라 만든 형태, 굽이 높은 형태의 履로 구분된다. 鳥은 겹바닥이며 끈이 부착된 형태이다. 한국은 靴의 형태가 초기의 신부리가 뾰족하고 속은 尖頭形이 많이 보여 북방계적 요소가 강한 특징을 보이는데 점차 신부리의 형태가 완만한 靴로 변화한다. 鞋와 履의 형태도 둥근 신부리의 형태와 지금의 고무신과 흡사한 등글고 신코가 솟은 형태로 정리되어 간다. 履의 형태는 履와 같은 울이 둘러져 있는 형태의 굽이 달려있다. 日本은 그 履이 한국과는 다른 사방에 울이 둘러져 있지 않으며 다만 굽과 같은 날이 2개 달려있는 특징을 보인다.

3. 용도 및 기능에 따른 유형과 특징

다음은 동북아시아 신을 기능에 따라 나누어 그 유형을 고찰하였다(표 8).

〈표 5〉 동북아시아 폐쇄형 신(靴, 鞋, 履)의 분포 및 특징

특징 분류		형태	목적	재료	특징	지역
靴	지형	강설지역 靴, 草沓 (圖 4)	신체보온(발의 보온) 미끄러움 방지 방수, 방습	털, 가죽, Felt, 불개가죽	· 미끄럼지 않은 猪皮사용 〈도 1〉 · 젖지않도록 草를 이용 · 신바닥에 钉을 박음	중국 동북부지역 일본 북부지역
		산악지역 靴(釘靴) 〈도 5〉	산악의 추위 미끄러움 방지	가죽	· 활쏘기 좋고 경기에 좋음 · 바지를 靴안에 넣고 착용	한국 북부지역 중국 북부지역
		사막지역 靴	사막지면의 열기 차단 모래침투차단	가죽	· 지면의 열기차단 · 다리보호	중국 서부지역 중앙아시아지역
	기능	신분표시 用	신부리가 젖 허 올라간 靴 위엄(직관자用) 표시	가죽, 천	· 지면의 열기차단 · 다리보호	중국, 한국지역
鞋 · 履	기후	기마用 신부리가 젖 허 올라간 靴 (尖頭靴, 简靴)	다리보호 착용감 우수	가죽	· 색상, 재질의 차이 · 장식의 차이	중국, 한국지역
	기후	추운지역 皮革 布履	보온유지	가죽, 나무, 천	· 말타고 활쏘기 편리한 武 靴역할 · 사냥用	중국, 한국지역
		온대지역 草鞋, 草履, 布履	실용적 이유 (부드럽고 착용 감있도록 함)	가죽, 천, 풀	· 일반적인 신	중국, 한국, 일본 지역

〈표 6〉 동북아시아 개방형 신의 분포 및 특징

특징 분포지역 분류		형태	목적	재료	특징	지역
샌	열대 온대	· 平履 · 발등과 발목을 끈으로 묶는 형태	· 雨天時 진흙이 묻고 발이 빠지지 않도록 함.	· 木 · 竹	· 木履과 같으나 사방에 울이 없는 특징	· 중국 남부지역 · 일본 지역
	농경 지역	게다, 다게다(十로프) 〈도 6〉	· 논에서 작업시 안정된 자세로 작업하기 위함 · 추수때 이삭털 이용	· 木 · 木十鐵	· 진흙에 빠지지 않도록 장방형의 竹 또는 竹가 닳고 사이가 벌어져 있음 · 竹밑에 鐵의 날이 달려있음	· 일본 지역

〈표 7〉 三國 신의 형태에 따른 유형 및 특징

형태, 유형 국가별 특징	靴形	鞋、履形	舄形	屣形	andal形
中 國	尖頭形 신바닥(밀창)높임형 솟은 신부리형	끈조임형<도 7> 굽높임형 전족형	겹바닥형 끈부착형	굽 달린板형	슬리퍼형 (앞부리 막힘)
韓 國	尖頭形 등근 신부리형 솟은 신부리형	등근신부리형 (圓頭形) 등근뾰족형	靴形, 履形, 끈부착형 <도 8>	굽 달린 배모 양형	끈걸이형 (발목 또는 발등)
日 本	솟은 尖頭形 短靴形	솟은 신부리형	高鼻履形 끈부착형	굽 높은 板形 (+끈부착형)	발가락 끈걸이형

〈표 8〉 三國 신의 용도 및 기능에 따른 유형 및 특징

기능, 유형 국가별 특징	방한형	장식형	보행기능형	신분(계급) 표시형	특수기능형
중 국	바닥보완형 재료보완형	신부리, 앞코 장식형 굽높임형	밀창누빔형 신부리 젖혀 높이 올라 간형(高鼻形)<도 9>	색상, 재질, 장식 차별형 형태차별형	騎馬形 縹足形 花盆鞋形
한 국	재료보완형	신코 문양 장식형 繡 장식형	등근뾰족형 징 박음형	색상, 재질, 장식 차별형 형태차별형	騎馬形
일 본	재료보완형 (북일본지역)	채색형	높은 굽형	색상차별형 형태차별형	논 작업형 추수 작업형

동북아시아 삼국의 신은 그 용도와 기능을 크게 방한형, 보행기능형, 신분표시형, 특수기능형, 장식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방한형의 특징은 그 재료선택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유형이 많고 장식은 중국과 한국에서 신부리의 장식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행기능면에서는 밀창을 누비거나 징을 박아 미끄러움을 방지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특히 중국은 예복착용시 밀단이 끌려 밟혀 넘어지지 않도록 신부리 높이 올라가며 장식이 가미된 특징을 보인다.

4. 재료 및 장식에 따른 유형과 특징

초기에 신의 재료였던 革은 “革”로 표시되었는

데 이것을 야생동물 한 마리를 잡아 해부한 모습에서 유래된 상형문자이다.⁴⁶⁾ 동북아시아 삼국은 신의 재료가 皮革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되며 농경생활의 정착후 草 및 布류로 제작되었다고 본다. 다음은 三國신의 재료에 따른 유형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표 9).

중국에서 신의 재료는 皮를 주로 이용한 靴, 履를 비롯하여 草와 葛 등을 재료로 하는 草鞋類, 또 나무로 만들어지는 木屐, 麻, 絲 등으로 만들어지는 布鞋로 대별 가능한데 그 재료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신명칭은 다양하게 기록되어 나타난다.

일본 계다는 그 지역에서 나는 나무를 소재로 오동나무, 삼나무, 檜나무, 朴나무를 사용하고 발바닥 부분을 등나무로 엮은 깔개를 댄 것등이 있다.

46) 絡崇麟, 韓의책, p.21

〈표 9〉 三國신의 재료에 따른 유형 및 특징

재료, 유형 국가별특징	草, 菖類	毛皮, 草類	木 類	布 類	기 타
중 국	부들형 짚으로 끈형 삼(麻)	毛皮 革	지역산 나무	채색 비단류	Felt 혼합재료
한 국	짚으로 끈형 삼(麻)	革	지역산 나무	비단류	혼합재료 놋신(鎔)
일 본	콜풀(藁)형	魚皮, 草, 毛皮	지역산 나무	비단류	

V. 結 論

본 논문은 신의 발생과 조형을 고찰하기 위하여 고대 인류문명 발상지역을 시작으로 연구하였으며 東으로 동북아시아 신 문화의 특징과 유형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신의 발생은 인간의 발 保護를 위하여 고안되었고 傷害와 防寒의 자연발생적 필요에 의한 기후 풍토적이며 생태학적인 배경을 가진다.

신의 祖型은 첫째, 발을 감싸는 형태로 가죽 그대로를 가지고 오늘날의 봉대 또는 깁발처럼 발과 다리를 감아 들려 싸매는 足衣 형태와 둘째, 한 장으로 된 장방형의 템이나 가죽 등으로 싸서 오므리는 형태의 오늘날 인디안 모카신과 비슷한 폐쇄형이 먼저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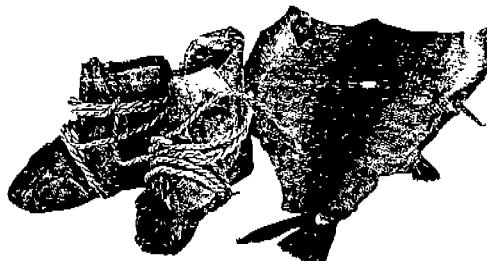
2. 고대 문명발상지의 신은 기후 환경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개방형이 주로 많았으나 중앙아시아 지역 즉 동양으로 부터의 기마민족과의 교류를 통하여 신부리가 젖혀 올라간 靴가 수입되어 군대복식으로 착용되기 시작하였다.

3. 중국의 中原지방은 원래 신의 길이가 발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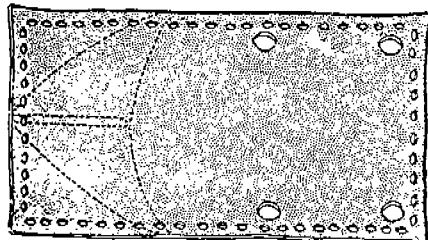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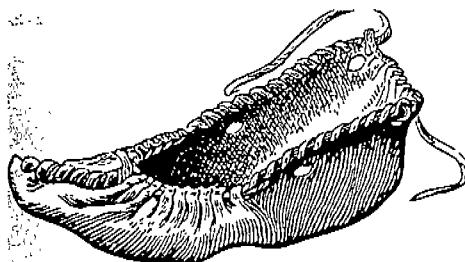
넘지 않는 폐쇄형의 履類와 부분적으로 南方지역의 이 위주였으나 일찌기 주변의 북방기마 민족과의 교류로 靴가 채택되어 착용되었다. 한국은 폐쇄형의 履와 靴가 착용되었으며 기후 환경의 차이에 따라 북방지역은 靴, 남방계는 履로 착용되었고 드물게 개방형의 샌들류도 보인다. 고대 일본 이후 일본지역에서는 대부분 맨발이었으나 대륙의 稻作문화 유입과 함께 농경생활에 필요한 다개다(田下駄)가 착용되기 시작하였다.

4. 신은 기후변화, 기능, 사회경제, 심미적 요인에 의하여 유형결정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환경적 기후변화가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가지며, 기능적요인은 창장의 변화에 사회경제적, 심미적요인은 신의 재료, 형태, 장식 등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5. 신은 발의 노출여부에 따라 개방형, 폐쇄형으로 유형이 분류되며 기능적으로 방한형, 장식형, 보형기능형, 신분표시형, 특수기능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특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재료와 장식에 따라 명칭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9).



〈도 1〉 연어皮 靴
(「All about shoes」, p.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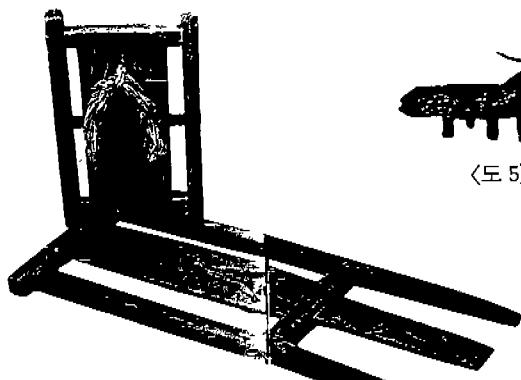
〈도 2〉 一枚로 제작한 모카신
(「All about shoes」, p.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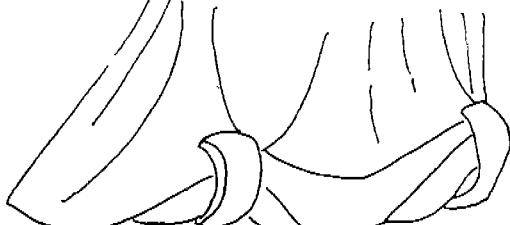
〈도 3〉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굴된 앞끌이 올라간 신
발모형 B.C 13~12C
(「20,000 years of fashion」, p.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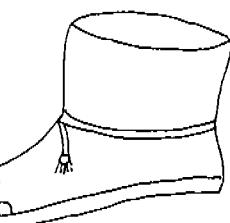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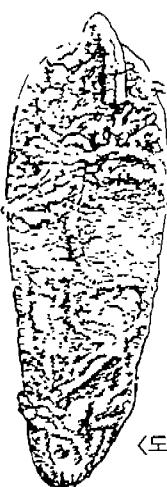
〈도 5〉 禮甲武人の 신
(「한국미술전집」4)



〈도 4〉 雪沓
(「All about shoes」, p.21)



〈도 6〉 논 작업用 다게다
(「All about shoes」, p.19)



〈도 8〉 한국의 烏
(「世宗實錄」)

〈도 9〉 蓮花形 小頭履
(「唐代服飾資料選」)

〈도 7〉 鞋
(「漢代の文物」, p.12)

参考文献

- 1) 「經國大典」, 韓國情神文化研究院。
- 2) 金英淑, 「韓國服飾史 資料選集－上古, 高麗篇」, 서울 : 東洋服飾研究院, 1985.
- 3) 任明美, 「한국의 복식문화(I)」, 서울 : 경춘사, 1994.
- 4) 加藤九作, 「北東アジア民族學史の研究」, 恒文社, 1986.
- 5) 井上泰男, 「衣服の民族誌」, 文化出版局, 昭和 57.
- 6) 太田臨一郎, 「日本服制史 上」, 「中」, 「下」, 文化出版局, 平成元年。
- 7) 杉本正年, 井上泰男, 松本敏子, 「東西の服裝史」, 東京 : 衣生活研究會, 1985.
- 8) 高田倭男, 「服裝の歴史」, 東京 : 中央公論社, 1995.
- 9) 江水, 「中華服飾文化」, 山西人民出版社, 1991.
- 10) 絡崇騏, 「中國鞋文化史」,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 11) All about shoes, Toronto : Bata Limited, 1994.
- 12) Colin McDowell, Shoes-Fashion and fantasy, Rizzoli International Pub. 1989.

ABSTRACT

A Study on the Footwear Culture of Northeast Asia

-Focusing on wha, hye, lee-

In this thesis, the northeast Asian footwear culture are examined. In order to search the origin, It started from the cradle of ancient civilization such as Mesopotamia, Egypt,

Indus, and ancient China civilization region prior to the northeast Asia.

The results are :

- On account of severe, intense climates and rough road as well, ancient people starts to put the shoes on.
- Primitive form of ancient footwear put into the two categories :
- Chinese in the central land begins to put the shoes named Lee(履).
- After making contact with nomadic northern races, boots named Wha(靴) is adopted functionally and taken throughout China.
- Koreans wear the shoes both boots(靴) and shoes named Lee(履),
- Japanese walked with bare feet and simultaneously Dagetta(田下駄) was used for rice farming.
- The changes of footwear is mainly influenced by the factors such as climate condition, social, economic prohibition, functional elements and aesthetic standards. Climate conditions have influence upon the footwear materials, form and foot exposure. The functional elements influenced on the ways of wearing shoes. Decorated patterns and materials of footwear is under the influence of social, economic prohibition and also affected by aesthetic standards<Tab 1~4>.
- In accordance with pattern, function, materials of footwear,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footwear in China, Korea and Japan came out with diversity<Tab 5~9>.